

## ‘이봉상 사건’의 전승과 의의

서경희\*

<차례>

1. 서론
2. 이봉상 사건의 전파 경로와 기록 양상
3. 이봉상 사건 관련 기록의 특성과 의의
4. 결론

### <국문초록>

이봉상 도주 사건은 사건 당사자에 의해 진술되고, 소문이 퍼지며 목격자가 전달하고, 관련 자료가 수집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전승 과정에서 여성 구술자의 역할과 한글 독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건인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봉상 도주 사건에 관한 기록들은 역사적 인물인 이봉상의 행적보다는 그 주변 인물을 확대하고 주변 인물과 관련된 정보 및 사건들을 부연해 나가면서 각기 다른 이야기로 변이되었다. 주변 인물의 활용은 장면의 확대와 사건의 극적 구성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사건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봉상 사건의 전모를 기록한 경우는 대체로 이봉상의 도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기록들이 당사자를 포함하여 노론계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임옥사 이후 노론계 인사들이 옥사 전후의 사건을 재조명하고 당세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봉상 사건은 하나의 美談으로 기록되어 읽혔다. 또한 死地에서 벗어난 이봉상에 대한 기록은 노론계 인물들이 명맥을 이어나가기까지의 과정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론 집안 구성원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奇談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봉상 사건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에 대한 기록은 당파의 명맥 유지와 전통적 가치의 수호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천명의 보살핌과 노비의 충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변이되어 전승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 노론, 이봉상, 임인옥사, 역사적 사건, 허구

## 1. 서론

李鳳祥은 노론 四大臣인 李爾命의 손자이며 李器之의 아들이다. 그는 임인옥사 때 조부와 부친이 사건에 연루되어 죽은 뒤 노적될 상황에 처하자, 노비의 시신으로 남의 이목을 속이고 도주하여 목숨을 부지한 인물이다. 임인옥사 이후 조정에서 이봉상의 도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실록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남게 되며, 野史나 개인 문집 등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글이 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봉상의 도주는 임인옥사라는 당대 조정을 뒤흔든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발생한 일이며, 또한 명문거족의 자제가 하루아침에 야반도주하여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끌 수 밖에 없었다.

실상 이봉상 사건은 고전소설에서 많이 보았음직한 내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고전소설과 여러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는 이봉상 사건을 통해 고전소설의 창작과 그 주변을 이해하고자 했다. 먼저 이봉상은 임치균교수가 지적했듯이<sup>1)</sup>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그 행적이 매우 유사하다. <영조실록>에 이익명의 상소와 함께 기술된 이봉상의 삶은 영웅의 초년이 그렇듯 고귀한 출생과 가족과 분리되어 겪는 시련, 시련의 과

1) 임치균, 「이봉상 사건과 영웅소설」, 『문헌과 해석』 17호, 문헌과해석사, 2001 가을, 54-60면.

정에서 조력자와의 만남,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고 벼슬에 올라 가족과 재회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른다. 임치균 교수는 이러한 사건이 일련의 영웅소설 형성에 바탕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봉상 사건을 진술하는 김씨 부인의 상언이 국문장편소설 창작의 저변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다.<sup>2)</sup> 이봉상의 조모인 김씨 부인은 이봉상이 도주한 뒤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여 그가 벼슬에 오르게 되자 상언을 올려 임금에게 지난 사연을 아뢰는데, 이러한 여성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 등이 여성 작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 <박소촌화>에 수록된 신임옥사 관련 이야기들의 지향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 논의에서 여기에 실린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기록이 소개된 바 있다.<sup>3)</sup>

이제까지의 연구는 이봉상 사건이 소설 창작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거나, 개별 기록에 국한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많은 단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역사적 사건의 전파 경로와 기록 과정, 변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역사적 사건이 허구화되는 교차점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봉상 사건의 전승 과정을 탐색하여 이야기가 형성되고 정착하기까지의 다양한 변수와 조건들, 또 그 의미

2)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99-232면 앞서 소개한 논의 외에 먼저 임형택 교수는 김씨부인의 상언을 학계에 소개하면서 이봉상 내외의 인생역정이 고소설 주인공과 흡사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김씨 부인 상언의 배경이 되는 이이명 집안의 고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358-384면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39-75면.

3) 조선옥, 「〈樸素村話〉 소재 당쟁이야기의 진술방식과 지향의식 신인사회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韓國民族文化』 2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12-43면.

를 이해하는 것을 논의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 2. 이봉상 사건의 전파 경로와 기록 양상

### 1) 진술, 소문, 기록

이봉상은 임인(1772)년 조부와 부친이 죽고 그 자신에게 화가 미치게 되자 조모의 도움으로 도주했는데, 이러한 이봉상의 도주에 대해 같은 해 말 조정에서 처음 거론된다.<sup>4)</sup> 소론인 權益寬 등과 사간원에서 이봉상이 자결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봉상이 스스로 목을 매 죽지 않고 물에 빠진 점이나 그의 시신을 검시한 인근 고을 수령이 친숙이라는 점을 들어 이봉상을 다시 잡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사람들이 모두 지목하여 의심하고, 터무니없는 말이 전파되어 그것을 수군대고 있”다는 사간원의 건의 내용을 통해 당시 이봉상의 자결과 관련하여 소문이 무성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봉상은 拏籍한다는 명이 내린 직후 종의 시신을 자신의 것으로 위장하여 남의 눈을 속이고 도주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 사건은 이봉상측이 의도한 대로 이봉상이 죽은 것으로 봉합되지 않고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온갖 추측성 소문을 생산해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조 1년 4월 25일 이봉상의 숙부 이익명이 배소에서 석방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의 생존이 사실로 확인된다. 이익명은 석방의 전지를 받고 상소하여 자신도 죽은 줄 알았던 이봉상이 당시 도주하여 숨어 지내고 있으니 곧 그를 찾아내 대죄하도록 하겠다고 아뢰는다.<sup>5)</sup> 이처럼 이봉상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뒤, 같은 해 5월 9일에 이익명의

4) 경종실록 2년 12월 21일 기사 참조.

5) 영조실록 1년 4월 25일 기사 참조.

처 김씨 부인은 손자 이봉상을 데리고 궐하에 나아가 상언을 올려 이봉상이 도주한 내막을 상세하게 전한다. 김씨 부인의 상언은 이봉상이 도주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과정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진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실록에는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이익명의 상소에 대한 기사 말미와 김씨 부인 상언에 대한 기사 뒤에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는 이익명과 김씨 부인의 진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봉상의 도주 후 후일담과 사건에 대한 사신의 평가, 그리고 앞서 소개한 도주의 내막과는 조금 다른 소문에 대한 언급 등을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실록에서는 이익명, 김씨 부인 등 사건의 당사자들이 진술한 사건의 내막과 함께 당시 알려진 사건의 전모, 후일담, 사신의 평가, 사건의 내막에 대한 다른 견해를 기록하여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일체의 소문들을 사관의 시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봉상의 도주는 왕명을 피해 달아났다는 이유로 조정에서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었다. 영조 3년에는 사헌부 등에서 이봉상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자 영조가 윤희하지 않다가 정배시켰으며, 영조 8년에 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자 왕은 전례를 따져 보고 처벌에 반대했다.<sup>6)</sup> 이처럼 조정에서 정치적 문제로 다루어짐에 따라 이봉상이 자수한 뒤에도 여러 차례 실록에서 관련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실록과 같은 공식 기록 외에도 이 사건의 전승과 기록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씨 부인이 작성한 상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씨 부인은 이봉상의 자수와 구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상언을 올리는데, 두 차례의 상언이

6) 영조실록 3년 9월 12일 기사, 3년 10월 24일 기사, 8년 윤5월 8일 기사 참조

모두 소실되지 않고 개인 소장되어 전하거나 집안사람의 문헌에 전사되어 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특히 먼저 올린 상언의 경우 陶菴 李緯의 <삼관기> 한글필사본 맨 마지막에 필사되어 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도암 이재는 김씨 부인의 시가인 완산 이씨 집안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다.<sup>8)</sup> 따라서 김씨 부인의 상언이 <삼관기> 말미에 함께 필사되어 전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재는 김씨 부인의 조카인 김용택의 부인 墓誌에서 김씨 부인이 멸족할 위기 상황에서 이봉상을 도망시켜 가문의 명맥을 이은 내막과 유사한 사연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sup>9)</sup> 이재의 <삼관기> 한글필사본 뒤에 이봉상 도주에 관한 당사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김씨 부인의 첫 번째 상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상언이 집안과 그 주변에서 전사되며 읽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숙종 대 이후 영조 때까지 黨勢의 추이를 기록한 잡록의 한글필사본과 김씨 부인의 상언이 한 책으로 묶여 전하는 것은 부녀자를 포함한 한글 독자들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함께 김씨 부인의 상언을 통해 이봉상이 도주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봉상이 도주한 내막은 김씨 부인 상언의 경우처럼 기록이 전사되어 읽히는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으나, 집안 인물들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기도 했다. 이봉상의 처조카인 金履安 (1722-1791)이 쓴 이봉상의 제문에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봉상이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한

7) 임형택, 앞의 논문 ; 서경희, 앞의 논문 참조.

8) 이재와 외사촌 간인 민진후의 딸이 김진화의 아들 김광택과 혼인했다. 이이명의 처 김씨 부인은 김광택에게 고모가 된다. 이재는 외가인 여흥 민씨 집안에서 태어나 외사촌인 김광택의 처와도 돈독하여 혼인 뒤에도 여러 번 그 집에 찾아가 김광택 등과 교유했다. 이재는 김광택의 처가 죽자 <孺人驪興閔氏墓誌>를 썼으며, 유인 민씨와 동서지간인 유인 완산 이씨의 묘지를 썼다.

9) 李緯, “孺人完山李氏墓誌”, <陶菴集> 권45 참조.

내용을 글의 서두로 삼고 있다.<sup>10)</sup> 이처럼 이봉상의 도주와 이후의 시련에 대해 집안 인물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은 추상적인 서술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전달되기도 했다. 李東允(1727-1809)의 야담집인 <樸素村話>와 그의 문집 <敏齋遺稿>에는 이봉상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동윤은 젊은 시절 그의 누나인 鄭雲煥의 처와 한 집에서 지내며 鄭氏婦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1)</sup> 저자의 누나 정씨부는 이봉상의 고모 이숙인<sup>12)</sup>의 외손녀로, 남편이 일찍 죽자 외조모 이숙인의 집에서 기거했으며 이동윤도 5, 6년간 함께 지냈다.<sup>13)</sup> 이동윤은 <박소촌화>에 이봉상의 도주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그 후기로 이봉상과 자신의 누나가 인척간이어서 그 전말을 얻어들을 수 있었다고 쓰고 있다.<sup>14)</sup> 실제로 정씨부는 이봉상에게 자신이 죽은 뒤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sup>15)</sup> 이동윤은 이봉상에게 명정을 작성할 때 시호를 사사

10) 生逢百凶, 詩人所悲, 如公閱歷, 于古亦稀. 金履安, “祭雪川李公鳳祥文”, <三山齋集> 卷九. 김이안은 漢湖 金元行의 아들로 이봉상이 그의 고모부가 된다.

11) 이동윤은 내외족친의 집안 인물과 교류가 잦았는데, 특히 이동윤의 누이 정씨부의 외가인 안동 김씨 자제들과의 교분이 두터웠던 것이 특징이다. 김양행, 김약행, 김헌행, 김우행 형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병직, 「李東允의 사상과 『樸素村話』의 저작 動因」, 『문창어문논집』 39, 문창어문학회, 2002.12, 47-77면 참조

12) 이숙인은 이이명과 김씨 부인의 둘째 따님이며, 金時發의 아내이다. 이동윤의 부친 厚濟는 김시발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나 이동윤의 누나인 鄭氏婦를 낳고 81 만에 세상을 뜬다. 이에 다시 朴受益의 딸과 혼인하여 이동윤을 포함한 3남 1녀를 둔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숙인은 이동윤의 누나 정씨부의 외조모이다.

13) 蓋吾姊氏生八日而喪母氏, 夫人育之而長嫁十六年, 喪夫子, 夫人取之而居 姊氏依夫人而居. 余又依姊氏而居者, 于今五六年矣, “祭淑人完山李氏文”, <민재유고>.

14) 설천공은 나의 누나 정씨부에게 외조모의 조카가 된다. 항상 누나에게 그 도망 다니던 일의 전말을 이야기하여 내가 지금 얻어 들은 바를 이와 같이 기록한다.(雪川公於我姊鄭氏婦爲外祖母之從子也. 嘗語其連竄顛末于姊, 余今記其旁聽如此.) <박소촌화> 1-67.

15) 及疾革, 顧東允曰: 汝爲我必請一文字于玉谷戚叔, 然慎勿溢美也. “姊氏鄭氏婦行錄”, <敏齋遺稿>.

로이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편지를 쓰며, 이봉상의 제문을 쓰기도 하는 등<sup>16)</sup> 이봉상과 각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박소촌화>와 <민재유고>에 실린 이봉상 관련 내용들에서는 누나 정씨부라는 취재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봉상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동윤의 기록들은 이봉상 사건을 사건 당사자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직접 목격한 이봉상의 고모 이숙인이 외손녀인 정씨부에게 전하고, 정씨부는 다시 저자인 이동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박소촌화>와 <민재유고>에 전하는 이봉상 사건은 집안 인물들에 의해 거듭 구전되고 집안의 주변 인물에 의해 기록되면서, 사실과 사실의 부연이 중첩된 형태로 야담과 문집에 실려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봉상 도주에 관한 기록은 <약과만록>과 같은 野史에서도 발견된다. <약과만록>은 李希齡(1697-1776)이 집필하기 시작하여 그 손자 李漢宗(1765-1843)이 마무리한 史書로, 특히 景宗, 영조 대의 사적은 이한종이 30여 집안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자료를 수소문하고 수집하여 정리한 내용들이다.<sup>17)</sup> 이봉상의 사적 역시 이한종이 관련 집안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과만록>의 이봉상 관련 기록은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세기가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 집안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인옥사 당시의 일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봉상의 도주와 관련한 기록이 누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이 100년이 지난 뒤에도 임인옥사를 기억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문제적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 “上玉谷李公鳳祥別紙”；“祭雪川李公文”，〈敏齋遺稿〉。

17) 김세윤, 「〈藥坡漫錄〉의 撰述과 그 體裁」, 『國史館論叢』 5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245-274면.

이처럼 이봉상 도주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과 소문, 그리고 소문의 기록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전하고 있다. 특히 집안 인물들을 통한 내막의 전달과 기록의 재생산 과정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이야기’로 진화하는 구체적 실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봉상 사건의 전파 경로에 따라 기록의 실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2) 기록의 제 양상

이봉상이 도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은 각 기록의 시기와 기록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이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봉상의 조모 김씨 부인의 상언에서는 이봉상이 도주하게 된 내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 귀지의 노적흔는 계스 기별이 니 르니 봉상이 영결코저 헝기 물 위헝와 잠간 묘하의 가슴거늘 의신이 즈부와 손부로 더브러 문져 죽어 명녕 이 아롬이 업게 언약헝여습더니 홀연 다시 생각헝니 의망부의 죄 더디로 충 정을 득헝옴고 망부의 나라홀 위헝옴는 단통과 혈성이 가히 질헝올지라 비 록 균흥의 원슈긔치 뒤위헝기를 넘스와 대륙의 썩젧스오나 실노 죄를 성도의 어든 업이 업스온 즉 하늘이 받드시 에엇비 녀키시물 드리오실 거시니 비록 심세유지 못헝오나 몸이 임의 면치 못헝여습고 또 헝 즈식을 보젧치 못헝였스오나 하늘이 또헝 츄마 손즈를 죽이리오 의신이 혼갓 죽기를 앓겨 이 일노 골육을 보젧치 못헝 즉 망뵈 삼세예 귀신이 일노브터 죽을지라 실 노 뼈 도라가 망부를 보옴지 못홀지라 헝여 이에 즈부를 도라보아 닐너 굴 오더 이 아히 임의 이 짜홀 찌나시니 만일 이를 인헝여 살기룰 도모헝 즉 엇지 텃헝이 아니가 계 궤 만일 이지 못헝 즉 헝가지로 죽오미 닳지 아니 헝 더 다만 도시의 거긔 아히업스니 어이헝리오 헝옴더니 이러 헝올 즈옴의 마

춤 집중이 나히며 얼굴이 봉상과 방불하니 잇습고 문 아래 박나강쉬잇습  
더니 죽을 뜻으로 뼈 날은 죽 그 종이 강개하야 스양치 아니코 강의 쟁져  
죽스오니 이 거시 즈못 하늘이 식이신 배라 이 밤의 발상하옵고 7만이 봉  
상의게 기별하야 하야곰 묘하로브터 심산궁곡의 드러나게 하고 이에 종의  
죽음을 관념하엿습더니 관부의셔 관을 쟁쳐 검시하기를 지내옵고 무덤을  
일우고 신주를 민드라 삼 년 제사를 하옵고 봉상의 형영과 존문을 한 번 간  
후 업스오매 일야로 하늘을 부러지저 그옥이셔 그 지탕을 지웁더니 금년 이  
월의 부인베소의 잇스올적 홀연히 제 편지를 보오니 오히려 죽지 아니코 무  
쥬부 산협의 몸이 잇노라 하엿습거늘……<니녕부스 부인 김씨 상언>

김씨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이명과 이기지가 죽고 그 가족을 노적하  
는 계사가 내려와 이봉상이 부친의 묘소에 영결하러 간 사이 자신이 계획  
을 세워 이봉상을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손자를 도주시키고  
집중을 대신 죽게 하여 이봉상이 죽은 것으로 관부의 눈을 속인 후, 무덤  
과 신주를 만들어 삼 년 제사를 지내는 동안 이봉상의 생사를 몰라 애태  
우다가 1725년 상소를 올리던 해에 편지를 받고 그가 무주의 산속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김씨 부인의 상언에 따르면 이봉상의  
도주는 김씨 부인이 계획하여 성사시킨 사건으로, 그 사건의 진술 과정에  
김씨 부인이 설득하여 이봉상을 대신해서 죽도록 한 집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인물이 언급되지 않는다. 김씨 부인 상언은 당사자의 진술이지만  
임금에게 올리는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 검열이 이루  
어진 공적 기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봉상의 도주 문제가 정치적 문제  
로 심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김씨 부인은 왕에게 올리는 문서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sup>18)</sup>

18) 김씨 부인의 상언에서 방어적 자세로 자기 검열의 글쓰기를 구사하고 있다는 논의는  
서경희 앞의 논문 참조.

이에 비해 실록에서 이익명의 상소와 김씨 부인의 상언 뒤에 부기한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내용은 사관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쓴 조정의 공식 기록이다. 이익명이 상소를 올린 1725년 4월 25일자 기사와 김씨 부인이 상언을 올린 5월 9일자 기사에서 전하는 이봉상 도주 사건의 전모와 그와 관련된 후일담은 다음과 같다.

(2) 당초에 이기지(李器之)를 수노하라는 명이 내려졌을 때 이봉상은 당시 나이가 16세였고, 집은 부여(扶餘) 백마강(白馬江)가에 있었다. 이익명(李命)의 누이는 군수(郡守) 김도제(金道濟)의 처(妻)인데, 명이 내려진 것을 듣고 밤에 가동으로 하여금 달려가서 이봉상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그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이봉상의 조모(祖母) 김씨(金氏)가 급히 이봉상의 유모(乳母)를 불러 귀에 대고 말을 하였다. 유모에게 아들이 있어 나이와 모습이 이봉상과 비슷하였다. 드디어 그가 이봉상의 최복(衰服)을 입고 즉시 그 밤으로 강가에 나아가 쉼을 모래밭에 벗어 놓고 물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이웃 마을에는 ‘이봉상이 강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 자자하게 퍼졌다. 하늘이 맑은 무렵에 사자(使者)가 이르러 시체를 강에서 건져 살펴보고는 돌아가 이봉상이 이미 죽었다고 상주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이봉상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봉상은 늙은 종과 도망하여 낮에는 산골짜기에 숨어 있고 밤에는 걸어가 무주(茂朱)의 적상 산성(赤裳山城)에 도착하였다. 재물도 있고 의리를 좋아하는 이만득(李晩得)이라는 사람이 이봉상을 보고 마음으로 의심하였으나 받아들여 살게 하였다. 한동안 살고 나서 이봉상이 사실대로 고하자 이만득은 더욱 불쌍히 여겨 더욱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이 때에 이르러 이봉상이 비로소 죽지 않았다고 자수하니, 임금의 대단히 기이하게 여기고는 임조(臨朝)하여 여러 차례 차탄(嗟歎)하였다. <영조실록 1년 4월 25일>

(3) 사신은 말한다. “이봉상(李鳳祥)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쳤을 적에 흉당(凶黨)들이 그를 거짓으로 죽었다고 하는가 의심하여 이삼(李森)의 기포(譏捕)가 영남(嶺南)·호남(湖南)에 거의 두루 깔렸으나 끝내 자

취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 어찌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가동(家僮)이 주인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은 실로 만고에 걸쳐 높이 뛰어난 절개이니, 어찌 말세(末世)의 일개 동노(僮奴)가 쉽사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때 이봉상의 가노(家奴) 가운데 나이와 용모가 대략 비슷한 자가 있었는데 마침 그 집에서 죽었으므로, 이내 이봉상이 익사(溺死)했다고 하고 드디어 상례(喪禮)를 치르고 성빈(成殯)했다'고 하였다." <영조실록 1년 5월 9일 >

(2)에서 소개하는 이봉상의 도주 과정은 김씨 부인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수노의 명이 떨어지자 김도제의 처인 이봉상의 고모할머니가 미리 소식을 알려주며, 조모 김씨 부인이 유모의 아들을 대신 죽도록 했고 날이 밝을 무렵 사자가 시신을 확인하고 이봉상이 죽은 것으로 조정에 아뢰어 더 이상 이봉상의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봉상은 늙은 종과 도망하여 무주에 이르러 이만득이라는 자의 집에 기거했는데, 처음에는 이만득이 이봉상을 의심했으나 나중에는 사실을 알고 불쌍히 여겨 후대했다고 전한다. (3)에서는 (2)에서의 경위와는 달리 이봉상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는 뒤, 이를 의심하여 적당이 영남, 호남을 두루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는 사실과 김씨 부인의 설득으로 유모의 아들이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침 이봉상의 집종 가운데 이봉상과 비슷한 자가 죽어서 이봉상이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는 소문을 소개하고 있다. 실록의 기록에서는 이봉상이 도주하는 과정에 도와준 인물들이 여럿 등장하며, 인물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다. 고모할머니 김도제의 처와 늙은 종, 이만득이라는 인물이 이봉상이 도주하기까지 조력자로 역할을 하며, 이봉상 대신 죽은 종에 대한 정보도 한층 상세하게 제시된다. 또한 (3)에서는 이봉상의 도주 과정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봉상 도주 과정에 대한 또 다른 경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공적 기록인 실록에서조차 이봉상 사건에

대한 여러 소문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3)의 사관의 언급을 통해 (2)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 확정되지 않고 하나의 ‘설’로 존재하게 된다.

당사자의 진술이나 실록의 공적 기록보다 이동운의 <박소촌화>와 <민재유고>의 기록은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박소촌화>에 수록된 내용은 이봉상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이 길어서 기록의 전문이 아닌, 서사 단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9)</sup>

(4)

1. 이기지가 죽고 이봉상이 연좌되자 중 守賢 이 이봉상을 데리고 집을 나간다.
2. 여러 해 문을 쓸던 榮泰 라는 아이의 집이 태백인데, 난을 피할 만 하여 수현이 이봉상과 함께 태백을 향한다.
3. 짐종이 이봉상의 옷을 입고 백마강에 빠져 죽으니 수령이 두 번에 걸쳐 검시를 한다.
4. 수현과 이봉상이 무주를 지나다가 이이명과 옛 교분이 있는 李晩得을 만나 이만득의 집에 숨는다.
5. 이봉상은 변발에 아이 복색을 하고 숨어 지내는데, 이만득은 이이명 부자의 소상·대상이 되면 이봉상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 통곡하게 했고, 수현을 통해 매년 한 번씩 집에 편지를 전하여 생사를 알렸다.
6. 흉당이 이봉상을 은밀히 찾으니 이만득은 군교가 되어서 그들을 정찰하여 위급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일을 잘 처리했다.
7. 여러 해가 지나 숨기가 어려워지자 이만득은 온 집안이 이질에 걸렸다고 속이고 이봉상을 데리고 피신했다.
8. 장마로 산사태가 나서 온 마을이 다 변을 당했을 때에도 이봉상은 무탈

---

19) <박소촌화> 1-67 참조

했다.

9. 흉당이 이봉상의 외조부 鄭覺先을 잡아 추궁하고, 용한 집쟁이에게 짐을 쳐서 이봉상을 잡고자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10. 1725년 이익명이 상소하고 김씨 부인이 이봉상을 이끌고 석고대죄하여 말씀을 아뢰자, 상이 김씨 부인을 위로하고 이봉상을 부치지간처럼 대했다.

11. 이봉상은 이후 김씨 부인과 모친을 모시고 부강에서 지냈는데, 1727년 흉당이 이봉상이 도주했던 일을 법으로 다스리자고 청하자 상이 윤휴하니 이봉상은 이때 자신이 죽을 것이라 여기면서도 침식을 편히 했다.

12. 상이 다시 명을 환수하여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는데, 후자는 왕대비가 이익명의 충성을 생각하고 울며 간하여 왕이 마음을 돌렸다고도 했다.

13. 이봉상은 진도, 나주, 임천 등지에 유배되었다가 1740년 이익명이 사면되면서 그 역시 용서받게 된다.

14. 이봉상은 무주 시절부터 학문에 힘썼으며 金信謙을 따라 金昌翁에게 학문을 배웠다.

15. 이만득은 그 공을 포상받지 못했으나 훗날까지 이봉상 집안을 돌봐주었으며, 이만득이 죽자 이봉상이 묘지를 쓰고 그 아들과 왕래했다.

16. 이봉상은 이동윤의 누나인 정씨부에게는 외조모의 조카가 되니, 일찍이 누나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한다.

(4)에서는 앞서 다른 기록에서 이미 등장한 강에 빠진 집종과 이만득 외에도 수현, 영태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봉상이 사면된 뒤의 일까지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만득은 (2)에서 이봉상을 의심했다가 나중에야 사연을 알고 도와주는 것과는 달리, (4)에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봉상의 도주에 가담한다. 또한 이봉상이 애초 태백을 향해 가다가 이만득의 집에 숨게 된 이유와 숨어 지내는 동안의 행적, 이봉상을 찾으려는 반대당의 은밀한 공작 등에 관한 내용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인물과 사건이 풍성해진 기록 외에 <박소촌화>에는 이봉상에 관한 기록이 하나 더 보인다.

(5) 설천공이 무주에 있을 때 그 처의 어머니 죽취공 부인은 금산에 유배 되어 있어서 서로 거리가 가까웠지만, 그 사위가 정말 물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고 설천공도 장모가 유배된 것을 알지 못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모 의하기를 신중하고 비밀리에 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수현은 곧 설천공의 외가에서 온 노비이다. 정씨가 화가 두려워 잡히고자 했으나 노비가 충성을 다하여 독자를 생존하게 했으니 또한 기이하다! 충문공 부인이 수현에게 후하게 상을 주었는데 좋은 전토로 그 공과 노고에 보답했다고 한다. 당시 김용택공 또한 혹독한 화를 입었는데 그 아들 대제가 이천의 산속으로 도망 갔다가 그 가까운 친척에게 화를 입어 잡혀 들어가 마침내 참혹한 형벌을 면하지 못했으니, 아 참담하다 할 뿐이다.<sup>20)</sup>

모두 <박소촌화>에 실려있는 기록이지만, 저자는 (4)의 기록에서 이만 득의 공을 높이 샀다면, (5)의 기록에서는 종 수현의 공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설천공 이봉상이 무주에 도망 다니던 때 집안사람들이 이봉상의 도주와 관련된 사실이 누설될까봐 철저히 비밀로 했다는 것과 함께, 이봉상의 모친 정씨 부인이 자수하려고 했을 때에도 종 수현이 이봉상을 도와 그를 살려냈다고 전하면서 그의 충성심에 감탄하고 있다. 그리고 이봉상의 조모 김씨 부인의 조카인 김용택의 아들이 이봉상과 같은 상황에서 결국 화를 면치 못한 사연을 덧붙여 수현의 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 雪川公在茂朱時, 其妻母竹醉公夫人謫錦山, 相距密通, 而謂其壻眞箇懷石, 雪川公亦莫知其妻母之謫在. 于是, 當時人謀之慎密亦可知矣. 守賢卽雪川公外家所來之奴也. 鄭氏方畏禍欲捕, 而奴能竭忠存孤, 其亦異哉. 忠文公夫人厚賞守賢, 以好田土以酬其功勞云. 當時金公龍澤亦被酷禍, 其孤大材連竄于伊川峽中, 爲其至親狀禍而捕納, 竟不免慘刑, 吁可慘也已. <박소촌화> 1-69.

<박소촌화>에 전하는 두 기록이 이봉상 도주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만득과 수현의 공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면, 같은 저자가 쓴 <민재유고>의 기록에서는 이봉상의 도주와 관련된 제 삼의 숨은 조력자를 드러내고 있다. 이동윤은 이이명의 사위인 金時發의 동생 金時哲의 행록에서 그가 이봉상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주었던 행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이명이 죽기 직전 자신을 찾아온 사위 김시발에게 손자 이봉상의 목숨을 부탁하는데 김시발 역시 옥에 갇히게 되자 김시철은 형의 뜻을 받아 몰래 서찰을 증소 김신겸 공의 부인(이봉상의 고모)에게 전하여 이봉상이 도망가도록 했다. 이후로 김시철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아서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그로 인해 이이명이 후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동윤은 이 일 역시 누나 정씨부에게 들었다고 했다.<sup>21)</sup> 김시철의 행록에 기록된 내용은 사건의 전모라기보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이면을 소개한 것으로, 행록의 주인공이 이봉상 도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숨은 인물임을 알리고 있다.

김시철의 경우와 같이 이미 알려진 사건의 전모에 알려지지 않은 내막을 덧붙이는 기록이 전하기도 하지만, 알려진 바와 다른 내용의 기록이 발견되기도 한다.

(6) 의금부에서 이기지의 아들이 부여에 있을 때 도사를 보내서 교수형에 처하게 했다. 오래지 않아 기지의 아들 봉상이 나이 15세가 되니 김신겸과

21) 壬寅李忠文公，將受後命于漢津。公兄錦山公，卽忠文之婿也，往訣于被逮之中，時羣兇最嫉，忠文必欲使其家無噍類，忠文公執錦山公手，顧其孫曰：此兒活否，惟在君輩矣。居無何，錦山公亦繫獄，公遂承兄志，以密札，往復于櫓巢金公夫人，卒用李文姬謀，使忠文之孫連竄。而凡金櫓巢公卽公族兄，而亦忠文婿也。公自此絕口不道前事，忠文家人亦莫之知，而忠文之有後實亦賴公之力也。東允頗聞故事於亡姊鄭氏婦，或有後人之所未知者，故錄之如此。“同知中樞府事恥菴金公時哲行錄”，<민재유고>人。

그 아내는 이봉상이 이를 모면하도록 모의했다. 이전에 기지의 장인은 재선이라는 어린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성격이 탐욕스럽고 사나우며 술주정을 했으므로 장차 그를 죽이고자 했다. 그러자 이기지가 재선을 빌려서 집에 데려와 후하게 대해주었으나 그 종은 오히려 성품을 고치지 않았다. 화가 일어났을 때 모든 종들이 흩어졌는데 재선은 홀로 가지 않고 몰래 이봉상을 업어 무주의 깊은 산속으로 달아나 숨어서 힘을 다해 돌보다가 4년 뒤에야 나왔다.<sup>22)</sup>

(6)의 기록에서는 실록과 <박소촌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만득이나 <박소촌화>에만 등장하는 수현 대신 再先이라는 종을 등장시키고 있다. 사건 이후 거의 100년쯤 뒤에 쓴 <약과만록>의 기록은 새로운 내력을 가진 종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재선이라는 종이 이봉상의 도주를 도운 동기에 대해서도 다른 기록들에서 볼 수 없었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이봉상의 부친 이기지의 厚待가 결국 포한한 종이 의리를 지키는 동기를 제공한 것이 되는데, 이 사연은 전혀 새로운 인물과 사건으로 구성된 이봉상의 도주에 관한 또 하나의 소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봉상 도주에 관한 기록은 당사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전언을 토대로 한 서술, 혹은 다양한 소문의 정착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지면에서 이루어진 기술, 또 사건 직후의 진술에서부터 1세기 뒤의 것까지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기록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이봉상 도주’라는 극적인 사건은 집안의 목격자와 전달자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혹은 기록되어 전파되면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22) 禁府, 李器之子在扶餘, 遣都事處絞事. 不久, 器之子鳳祥年十五, 金信謙與其妻謀免之. 初器之妻父有童奴曰再先, 性頑悍醉酗, 將殺之, 器之貰而歸, 厚遇之, 奴猶不悛. 禍作, 諸奴皆散, 再先獨不去, 竊負而遁, 匿茂朱深山中, 竭力而保護, 四年而後出. <약과만록> 권81.

전승되었다. 이러한 기록의 전승 경로와 제 양상은 하나의 '사건'이 '이야기'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러 기록의 실상들을 통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국면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이봉상 사건 관련 기록의 특성과 의의

#### 1) 서술 태도와 전승의 동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제 기록들은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정보와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진술, 또한 그 구체화 정도에서 각기 기록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이봉상 도주 사건이 구전되고 기록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김씨 부인 상언의 진술 내용은 주로 김씨 부인 자신이 이봉상을 도주시키기까지 심경의 변화와 이봉상이 도주한 뒤 그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 생사를 몰라 애태우던 것에 집중되어있다. 즉 이봉상이 아닌 김씨 부인 자신의 행위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씨 부인의 상언이 이처럼 이봉상이나 기타 주변인물의 행위가 아닌, 김씨 부인 자신의 행위 중심으로 서술된 것은 김씨 부인이 이봉상 도주의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이 글을 썼기 때문이다. 김씨 부인의 상언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이명과 그 집안의 입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김씨 부인은 남편 이이명의 충성과 억울한 죽음을 대비시키면서 집안이 멸족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시동생 이이명과 손자 이봉상,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이처럼 관련자를 최소화하고 문제의 소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절제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실록의 기록에서는 당시 알려진 바를 토대로 고모할머니 김도제의 처와 이만득 등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봉상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다. 특히 예문 (2)에 제시된 이익명의 상소 말미의 기록에서 사건의 전모를 소개한 뒤에 임금이 기이하게 여기고 臨朝하여 여러 차례 차탄하였다는 언급으로 마무리 하여 이봉상의 도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3)의 기록에서는 사신의 평에서 이봉상의 죽음을 의심하여 그를 체포하고자 했던 소론을 ‘흉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신의 평가가 노론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록의 기록이 당시 사관의 史草를 바탕으로 임금의 선악과 군신의 奸僞 등을 사실대로 직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sup>23)</sup> 이봉상의 기록은 사관의 私見이 일정 반영된 형태로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이봉상의 도주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노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사건을 기이한 일로 소개하며, 취재된 내용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그의 도주 경위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3)의 예문에 서처럼 이봉상의 생존에 대해 하늘의 뜻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이 사건에 대한 개인 기록인 이동윤의 <박소촌화>와 <민재유고>에서는 그 서술의 특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봉상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소개한 <박소촌화>의 경우 (4)의 서사 단락은 이봉상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그 후일담까지 다양한 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4)에서는 이봉상의 생존이 천명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만득과의 인연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봉상이 이만득을 따라 도망 중일 때 산사태로 온 마을이 변을 당했으나 이봉상만은 무사했다는 일화를 통해 이봉상의 생존이 하늘의 뜻임을 드러냈으며, 이만득이 이봉상을 피신시키기 위해 위협

23) 申奭鎬, 『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 『사충』 5, 역사학연구회, 1960, 3-9면 참조

을 무릅쓰고 갖은 노력을 다하며 훗날 사면된 뒤에도 이봉상의 집을 돌봐 주었다는 사연을 일일이 소개하여 이봉상의 도주가 이만득의 의리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의 예문에서도 이봉상이 목숨을 부지한 것을 중 수현의 덕으로 돌려서 수현의 충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4)와 (5)의 예문에서 서술자는 천명의 강조와 조력자에 대한 찬사를 통해 이봉상의 도주와 생존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특히 (4)에서 실록에서와 같이 이봉상을 추적하는 반대당에 대해 ‘흉당’이라 지목하는 것으로 보아 이동윤은 노론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윤은 이봉상과 먼 인척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그의 학맥이 노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서술 시각을 설명해 준다. 이동윤은 남당 한원진과 유근당 김교행을 사사하여 송시열에서 권상하, 한원진으로 이어지는 노론의 학통을 계승하고 동인이나 소론을 철저히 배격하는 입장에서 서 있던 인물로, 人物性異論의 입장을 취하며 존명배척 사상을 분명히 한 지식인이다. 그의 야담집 <박소촌화>는 현실적으로 대외명분이 점차 쇠퇴하고 현실론에 무게는 두면서 사회가 변화해 가는 시기에 명분이 무너지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변 지식인의 기록으로 평가된다.<sup>24)</sup> 이동윤은 이러한 학맥과 당색을 바탕으로 이봉상 사건을 취재하여 노론의 입장에서 조력자의 患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재유고>의 김시철 행록에서 언급된 이봉상을 살리기 위한 김시철의 숨은 행위는 노론 사대신인 이이명 집안의 명맥을 잇는 데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행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윤은 누나 정씨부에게 들은 이 사연을 훗날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 염려되어 기록으로 남긴다고 밝히고 있다. 사건 당시에는 함구해야만 했던 위험한 행위였지만, 결국 김시철

24) 이병직, 앞의 논문 참조.

이 이이명 집안의 멸족을 막았다는 사실은 이동윤의 입장에서 민멸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적이 되는 것이다.

이보다 좀 더 후대에 기록된 <약과만록>의 이봉상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재선이라는 종의 의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재선은 앞선 다른 기록에 등장하지 않던 인물이지만, 종이라는 조력자의 충성으로 이봉상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기본 설정은 앞선 기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약과만록>은 이희령 가문을 중심으로 저술되었는데, 저술에 참여한 사위 申協과 제자 權丕應 등이 노론계 인물이며 그 지면에서 소론계 인사를 ‘小人輩’로, 노론계 인사를 ‘志士’로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노론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저서로 추정된다. 특히 이한중은 소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편찬되어서 당시 널리 읽혔던 <연려실기술>에 대한 반발로, <약과만록>을 보완하여 완성한 인물이다. 이한중은 신임옥사 이후 정계 진출이 좌절된 집안의 일원으로서 가문의 몰락을 초래한 경종, 영조 대의 사적을 보다 강화된 反小論的 입장에서 정리하고 기록했다.<sup>25)</sup> 따라서 1세기가 지난 뒤 취재된 내용이지만, 임인옥사 때 어린 나이에 연좌되어 위기에 처한 이봉상이 도주한 사건은 이러한 기록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김씨 부인의 상언과 실록, 그리고 <막소춘화>와 <민재유고>, <약과만록> 등에 산재해 있는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기록은 모두 노론 집안의 구성원인 사건의 당사자나 노론의 입장을 견지한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봉상이 왕명을 피해 도주한 사건은 경종 2년 12월 21일 기사와 영조 3년 9월 12일 기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병화의 씨앗이며 범법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에서 비판 받았지만, 노론계 인물의 기록에서는 집안의 멸족을 피한 美談이며 종의 충성담, 그리고 어린 아이가 죽

25) 김세윤, 앞의 논문 참조.

을 위기를 벗어난 奇談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봉상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임인옥사 때 유배되거나 죽음에 이른 노론계 인사들이 당시의 사건들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재구성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고 정치적으로 결집하고자 했던 노력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노론은 辛壬義理를 명분으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적으로는 영조 17년(1741) 辛酉大訓이 반포되어 임인옥사가 誣獄으로 규정되었고, 영조 31년(1755) <關義昭鑑>이 편찬되어 신임옥사가 부정되고 노론의 영조 추대의 의리가 대의명분으로 정립되었으며, 사적으로는 <辛壬紀年提要>, <論辛壬義理文字>, <卞誣錄> 등 노론의 입장에 선 개인 기록들이 나오게 되었다.<sup>26)</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론의 중심인물이었던 이이명의 혈손 이봉상이 극적으로 살아남은 과정은 노론계 인물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 되며, 천명이 따르고 조력자가 충성을 바쳐 살아남은 이봉상의 존재는 노론 일당의 운명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노론의 당론서 성격을 지닌 이재의 <삼관기>와 김씨 부인의 상언이 합쳐져 함께 읽힌 것도 이러한 이봉상 사건의 전승 동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 2) 역사적 사건의 허구화 과정

이봉상이 왕명을 피해 도주했다가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은 고전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주인공의 고난과 매우 흡사한 역사적 사건으로, 실록과 문집, 야담, 야사 등에 기록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였다. 각 기록들

26)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88, 81-102면; 吳甲均, 『朝鮮後期黨爭研究』, 三英社, 1999, 259-267면; 李離和 編, 『朝鮮黨爭關係資料集』 9, 驪江出版社, 1985 참조.

을 비교해 보았을 때 조력자의 정체나 이봉상의 행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 어느 것이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지 그 진위를 분명하게 판별하기는 어렵다. 실록의 기록조차 또 다른 설을 소개하고 있어 사건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 부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씨 부인의 진술 역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자기 검열의 언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하고 있는 이봉상 도주에 관한 기록들은 대부분 그의 실제 행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씨 부인의 진술에서 이봉상의 도주와 관련된 행적은 세 단계로 요약된다. 이봉상은 부친의 묘소에 갔다가 조모의 기별을 받고 바로 도주하며, 김씨 부인은 대신 죽은 집종의 시신을 이봉상의 주검으로 위장하고, 무주에 숨어 지내던 이봉상이 사면될 즈음에 생존 사실을 집에 알리고 조모 상봉을 한다는 것이다. 이 진술에서 이봉상이 처음 집을 나서게 된 계기와 이봉상이 무주에 숨어 지내면서 김씨 부인과 연락을 취했는지의 여부는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김씨 부인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 진술이 실제 사실이라면 이봉상은 미리 계획하여 왕명을 도망한 것이 아니며, 그가 도망간 이후에도 가족들은 생사 여부를 몰라 자수하게 할 수 없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김씨 부인의 상언이 다른 기록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기록자는 사건의 내막을 사실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단순하게 구성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실록에서 소개하는 이봉상의 도주 사건은 이봉상의 고모할머니인 김도제의 처가 수노의 명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려 이봉상이 도주할 수 있도록 돕고, 이봉상 대신 죽은 종은 유모의 아들이며, 이봉상은 늙은 종과 함께 도망하여 이만득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숨어 지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처럼 실록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알려진 바를 기록하

면서 김씨 부인의 상언에서는 감추었던 조력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인물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실록의 기록이 이봉상 사건에 대해 당시의 여러 소문을 반영하여 관여한 인물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은 <영조실록>이 편찬되던 때에는 이 사건이 이미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며, 기이한 사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 대한 이동운의 기록인 <박소촌화>에서는 이봉상이 도주하는 과정이 더욱 자세하고 복잡하게 서술된다. 먼저 화소가 많아지고 관련 인물들이 더욱 많이 등장하며 인물들에 대한 내력이 소개되고 있다. 본래 집안일을 하던 영태의 집이 있는 태백으로 도주하던 이봉상이 그 조부와 교분이 있는 이만득을 만나 은신처를 바꾼 사연, 이이명의 생전에 모친을 위해 무주의 한적한 땅을 찾던 때에 이만득이 일을 주선하여 성사시키자 이이명이 진심으로 치사했는데 이때 종 수현과 이만득이 서로 알게 된 내력, 이만득이 이봉상을 숨기기 위해 반대당의 기미를 정찰하여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또 병을 핑계로 온 집안이 이사하면서도 이봉상이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이명 부자의 소상·대상 때 곡을 하고 본가에 소식을 전하도록 한 일, 그리고 산사태로 온 마을에 생존자가 없을 때에 이봉상만 무탈했던 일화 등이 새롭게 서술된다. 이 과정에서 <박소촌화>의 기록은 ‘이만득’에게 의리를 지키는 조력자로 그 성격을 부여하고, 이봉상의 도주 과정에 여러 위기 상황을 설정하여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하며, 사건을 전달하는 가운데 인물의 행위 묘사와 대화를 활용하여 장면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박소촌화>는 저자의 경험이나 주변인의 제보, 그리고 諺傳 등 기존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를 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의 이야기를 수용한 경우에도 轉載하기보다는 재구성, 합성, 축소, 평결의 부연 등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개작하여 수록한 경우가 많다.<sup>27)</sup> 특히 <박소

촌화>에는 노비 이야기가 많은데, 저자가 인물 설정 등을 통해서 노비 이야기로 개작하거나 그 역할을 극대화시키기도 했다.<sup>27)</sup> 이봉상 사건에 대한 기록 역시 <박소촌화>에 실린 다른 이야기들처럼 기록자의 특성에 따라 사건의 재구성이나 인물 역할의 확대 등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소촌화>에 실린 이봉상 사건이 다른 기록에 비해 확대·부연되어 서술된 것을 저자의 특성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이봉상 사건이 기록되기까지 이봉상의 고모이자 정씨부의 외할머니인 이숙인이 이동윤의 누나 정씨부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정씨부가 이동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이 재구성되고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당시 다양한 소문이 존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달 과정에서 전달자에 의한 사건의 변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봉상 사건의 전승 과정에서 정씨부와 같은 구술자의 역할이 사건을 새로운 서사로 재생산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봉상 사건의 재생산은 <약과만록>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약과만록>의 기록에는 이전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내력과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이봉상이 노적되기 전에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로 이봉상의 고모 부부인 김신겸과 그 아내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민재유고>의 김시철 행록에서도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는 실록에서 같은 역할을 한 인물로 이봉상의 고모할머니 김도제의 처를 거론하고 있는 것과 서로 어긋나는 정보이다. 또한 (6)의 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

27) 조선옥, 「『박소촌화』의 텍스트 생성에 관한 연구」, 『문창어문논집』 39, 2002.12, 79-108면.

28) 정준식, 「18세기 야담집의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34, 한국문학회, 2003.8, 381-407면

이, <약파만록>에서는 이봉상을 도운 인물로 이기지의 장인 소유였던 종 재선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재선이 이봉상을 도운 동기도 다른 기록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새로운 내용의 기록은 1세기 정도 지난 뒤에까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종의 소문이 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록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약파만록>의 기록은 ‘재선’이라는 부수적 인물을 탄생시킨 또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처럼 이봉상 사건에 관한 여러 기록들이 서로 다르게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주변 인물의 활용이다. 사건의 전승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봉상’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 중심인물을 돕는 주변 인물들이다. 기록의 길이에 따라 등장하는 주변 인물의 수가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들에게 이름과 내력 등 각기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건이 부연, 확대되면서 이들 주변 인물들은 일관된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변 인물과 관련된 부수적 사건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봉상 도주 사건의 전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역사적 사건의 진술이 허구적 성격을 띠게 되는 일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봉상 도주 사건은 기록자의 의도나 태도, 구술자의 역할과 기록 과정의 환경에 따라 각기 그 주어진 정보가 재구성되어 전승되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기록되는 과정에서의 변수에 의해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고, 그 결과 사실과 허구를 양끝으로 하는 좌표축 위에 다양한 기록들이 스펙트럼처럼 늘어서게 된다. 이봉상 도주 사건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 부연되고 확대되어 유통되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과 전승 과정은 그 의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 4. 결론

이봉상 도주 사건은 그 자체로도 매우 극적인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만, 이 사건이 1722년에 발생한 임인옥사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요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기록은 그 전승의 동기와 양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이 사건은 당사자에 의해 진술되고, 소문이 퍼지며, 목격자가 전달하고, 관련 자료가 수집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특히 전승 과정에 여성 구술자의 역할과 한글 독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건인 이봉상 도주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봉상 도주 사건에 관한 기록들은 역사적 인물인 이봉상의 행적 보다는 그 주변 인물을 확대하고 주변 인물과 관련된 정보 및 사건들을 부연해 나가면서 각기 다른 이야기로 변이되었다. 이봉상 사건에 대한 기록들의 경우, 주변 인물의 활용은 장면의 확대와 사건의 극적 구성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사건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허구화 방식은 소설 창작에서도 많이 활용되는데, ‘정난지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허구적 인물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확대한 <쌍천기봉>과 <성현공숙렬기> 등의 국문장편소설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이봉상 사건의 전모를 기록한 경우는 대체로 이봉상의 도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기록들이 노론 집안의 구성원인 사건 당사자를 포함하여 노론계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봉상 도주에 관한 이야기는 임인옥사 이후 노론계 인사들이 옥사 전후의 사건을 재조명하고 당세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美談’으로 기록되어 노론계 집안 인물들에게 읽혔다. 또한 死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이봉상에 대한 기록은 노론계 인물들이 명맥을 이어나가기까

지의 과정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奇談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봉상 사건의 기록은 당파의 명맥 유지와 전통적 가치의 수호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천명의 보살핌과 노비의 충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변이되어 전승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경종실록>

<영조실록>

金履安, <三山齋集>(『한국문집총간』238, 민족문화추진회, 1998).

李東允, <敏齋遺稿>(후손가장본).

이동운, <樸素村話>(규장각 소장본).

李緯, <陶菴集>(『한국문집총간』194-195, 민족문화추진회, 1998).

이재, <삼관기>(『陶庵先生集』人, 保景文化社, 1989).

이희령, <약과만록>(『약과만록』,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5).

김세운, 「<藥坡漫錄>의 撰述과 그 體裁」, 『國史館論叢』56 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245-274면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39-75면

申奭鎬, 「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 『사충』5, 역사학연구회, 1960, 3-9면.

吳甲均, 『朝鮮後期黨爭研究』, 三英社, 1999, 259-267면

이병직, 「李東允의 사상과 <樸素村話>의 저작動因」, 『문창어문논집』39, 문창어문학회, 2002.12, 47-77면.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88, 81-102면

李離和 編, 『朝鮮黨爭關係資料集』9, 驪江出版社, 1985, 1-830면.

임치근, 「이봉상 사건과 영웅소설」, 『문헌과 해석』17호, 문헌과해석사 2001 가을 54-69면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358-384면.

- 정준식, 「18세기 야담집의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34, 한국문화회, 2003.8, 381-407면.
- 조선옥, 「〈박소촌화〉의 텍스트 생성에 관한 연구」, 『문창어문논집』 39, 2002.12, 79-108면.
- 조선옥, 「〈樸素村話〉 소재 당쟁이야기의 전승방식과 지향의식-신입사화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韓國民族文化』 2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12-43면.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99-232면.

K C I

ABSTRACT

The Transmission and the Significance of a "Bong-sang Lee Case"

Seo, Kyung-Hee

A case of Bong-sang Lee's escape was transmitted in many forms while it was stated by Bong-sang Lee himself and rumor spread and a witness told it and related materials were collected. It showed women's interests in Bong-sang Lee case, involved with a political event, in that it cared about a role of female narrator and Korean-reading readers during transmitting. And the records of the case were changed into different stories as it included characters around Bong-sang Lee more than it showed Bong-sang Lee's doings and developed information or cases relating with them. In case of the records of Bong-sang Lee case, it could be seen that using characters around Bong-sang Lee made the story be rich more effectively rather than it enlarged the scene or made it be more dramatic.

In case of recording the whole story of Bong-sang Lee case, it showed a positive view on his escape. This is because the records were written by people of a party called "Noron," including Bong-sang Lee. It could be written as an admirable story and read by people of Noron in the mood that after Iminoksa - Massacre of Scholars happened in the year of Imin, they looked back on the cases happening before and after the massacre and intended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ir party. The records of Bong-sang Lee case, which show Bong-sang Lee managed to survive, dramatically represent how people of Noron had kept alive. So the records could be regarded as an odd story that they could feel sympathy for in the same position. Therefore, they were transmitted as a form that emphasized care of Providence and loyalty from servants, reflecting critical minds of the party's keeping alive and protecting traditional values.

**Key Words** Noron: a party in the 18th century in Lee Dynasty, Bong-sang Lee, Iminoksa - Massacre of Scholars happened in the year of Imin, a historical event, a fiction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

K C I